



남원 동충동 다문화가정 학생에 교육 교재 지원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황금숙, 안대희)는 지난 2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교육교재를 지원하는 '실력쑥 교육교재' 사업을 추진했다.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학기마다 새로운 교과서에 맞춰 학습교재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의 학업증진 독려하기 위해 이 사업을 기획했으며, 이날 초등학생 8명과,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등 총 11명에게 교재구입 상품권 및 마스크를 전달했다.

황금숙 회장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민과 동화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인월 영월사, 이웃돕기 백미 기탁

남원시 인월면은 관내 영월사가 지난 2월 26일 면사무소에 이웃돕기 물품 백미 10kg 50포(환가액 150만원)를 기탁했다고 밝혔으며, 영월사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지역주민을 위한 물품기탁을 비롯해 크고 작은 이웃돕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한편 주지 금강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물품이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되어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지역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은주 인월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손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을 보듬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춘계대학축구 '통영기 우승' 도전

전주대 축구부 13년 만에 결승 진출

전주대학교 축구부(감독 정진혁)가 13년 만에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에 도전한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는 지난 1일 산양스포츠파크경기장서 열린 용인대의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준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12대11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날 경기에서 승리한 전주대는 지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결승에 오른 것이다.

전주대는 이번 대회 예선 첫 경기에서 홍익대에 0대1로 패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예선 2번째 경기부터 매서운 공격력으로 초당대 3대0, 신성대를 4대0으로 꺾고 조 2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22강에서는 영남대를 2대1로, 16강서 광운대 3대1로, 8강서 성균관대를 5대3으로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다.

정진혁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호인 총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축구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결승에 진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 감독은 "추운 날씨속에서도 선수들이 집중력



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줘 경기에 승리했다"며 "지난 2008년 결승에서 연세대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대는 오는 7일 11시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지난해 우승팀인 선문대와 결승전을 갖는다. /장은성 기자



남원 운봉 지리산처럼, 여성용품 기증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운봉읍의 지리산처럼(대표 정정은)가 여성용품인 콜라겐 패션후르츠 제품 500팩(시가 1,350만원)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정정은(지리산 처럼) 대표는 운봉읍에서 여인의 콜라겐 제품 뿐만 아니라 참기름, 들기름,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공뿐만 아니라 참깨, 들깨 농사를 1만평 경작하며 지역 주민과 소득사업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제품을 저소득층인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콜라겐 패션후르츠 제품은 백향과와 들깨잎 추출을 활용해 먹는 제품(한팩 14개, 2만7,000원)으로, 노화방지, 이너뷰티에 효과가 있다.

한편 김흥수 생활기술 담당은 "센터에서는 농업기술 보급 사업과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생활개선회를 통해 살맛나는 남원농업의 발전과 함께 생산을 기반으로 6차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에 현판 전달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일성)는 관내에 위치한 카페드롭마 커피숍, 박앤박치과 및 혁신금나라공인중개사를 각각 착한가게 1호, 2호, 3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2일 전달했다.

착한가게란 매월 일정 기부액을 기부하는 정기기부 캠페인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혁신동에서는 코로나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지난해 11월부터 착한가게를 비롯, 개인들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기기부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카페드롭마 신경일 대표는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으며, 박앤박치과 박홍규 원장은 "의료인으로서 작게나마 뜻깊은 일에 함께해서 영광이며 정기기부 외에도 나눔의 정신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금나라공인중개사 전숙자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더욱더 기부에 동참하여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하고 싶다"고 전했다.

혁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일성 위원장은 "혁신동에 최초로 착한가게 1호, 2호, 3호점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착한가게를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장봉 혁신동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부를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신입교수 29명 임용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교육과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29명의 신입교수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지난 2월 25일 신입교수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연구 경쟁력 향상과 강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명장 전달식에서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학교 새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과 강의 질 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학습과정단위 평가 인정 '합격'

전주비전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2020년 원격수업 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 인정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매년 각 교육기관들이 신청하는 학습과정에 대해 기본요건 등 학습과정별로 평가를 해 승인하며,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학습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은 ▲사회복지학 전공 학위 및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학습과정 ▲아동학 전공 학위취득 및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과정이다. /장은성 기자

고창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 직무교육

고창경찰서(서장 김현익)는 은퇴한 전문인력을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치안보조 인력으로 활용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아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체력검사 미실시, 비대면 전화 면접을 통해 균등하게 선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895	정읍지사 536-376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58-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